

Title	一九八〇年代における南北統一運動のための日本教会の 役目と寄与 (韓国語)
Author(s)	李, 致萬
Citation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No.55 別冊, 2013.3 : 17-35
URL	http://serve.seigakuin-univ.ac.jp/reps/modules/xoonips/detail.php?item_id=5012
Rights	

SERVE

聖学院学術情報発信システム : SERVE

SEigakuin Repository and academic archiVE

1980년대 남북 통일운동을 위한 일본교회의 역할과 기여

이 치 만

여는 말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현대 세계의 정치구조와 이념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 세계 초강대국들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과 상호분쟁 속에서 한국민족은 속죄양의 고난을 당하여 왔다.”⁽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기독교는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실천하는 선교적 전통에 따라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이 대동단결하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실천해왔다. 하지만 분단의 장벽은 현실세계의 정치구조와 이념 속에도 뿌리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이어서 손쉽게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는 한반도의 통일문제 접근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세계교회는 한국기독교가 처한 고난을 심분 공감하며 한국기독교의 평화통일 의지에 찬의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잔소협의회」(1984.10)를 기점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전 세계에 호소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윽고 「제1회 글리온회의」(1986.9)에서 남북기독교인들은 세계교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뜨겁게 포옹하는 역사적 만남을 가졌다. 이후 현대 세계의 정치구조 및 이념체제의 현실적 구조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이는 남북기독교가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려는 주체적 의지의 결실인 한편, 한국민족이 겪고 있는 속죄양의 고난을 세계교회와 세계시민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준 결과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한반도 통일운동이 싹을 틔우고 무르익어 가던 1980년대를 중심으로 세계교회, 특히 이웃 일본기독교가 이 운동을 위해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또한 이 글은 한일기독교 관계를 역사적으로 주목하면서 쓰인 것이기도 하다.

1. 해방 이후 한일기독교 관계의 발자취⁽²⁾

해방 이후 한일기독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일국교정상화의 영향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이른바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양국의 기본관계를 대사급 외교관계로 규정하는 것이었다.⁽³⁾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계는 「한일기본조약」의 비준을 반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⁴⁾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KK'로 약칭함)는 1962년 5월에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⁵⁾ (이하, 'NCCJ'로 약칭함)의 대표 무토 타케시(武藤建), 고자키 미치오(小崎道雄), 시라이 케이키치(白井慶吉) 등 3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로써 해방이후 한일기독교계 대표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성사되었다.⁽⁶⁾ NCKK의 초청을 받았던 NCCJ는 이듬 해 한국기독교계 대표를 일본으로 초청하였고, 1964년 11월에는 양국의 평신도 교류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NCKK·NCCJ 공동주최로 「한일신도대표협의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 기독교계의 인적 교류는 한일기독교 관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역사적 죄과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NCCJ가 한국기독교와의 인적 교류를 시작하자,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죄와 화해를 통한 교류의 회복을 바라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먼저, 일본 내 최대교단인 「일본기독교단(日本基督教團)」⁽⁷⁾ (이하, 문맥에 따라 「교단」으로 약칭함)은, 1965년 2월에, 「교단」의장 오오무라 이사무(大村勇)를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문맥에 따라 「기장」으로 약칭함)에 축하사절로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9월에 열린 기장 제50회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한 오오무라는, “일본정부 및 국민이 범한 수많은 정치적 인권상의 죄악에 대해 일본교회는 머리숙여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뜻을 표하고, 「교단」과 NCCJ으로부터의 인사를 전하게 되었다.⁽⁸⁾ 그 해 11월에 「교단」의 세계선교협력위원회가 주최하는 「교단」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문맥에 따라 ‘재일대한교회’로 약칭함)⁽⁹⁾ 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해방 이후 단절되었던 「교단」과 재일대한교회 간의 관계가 서서히 열리게 되었다. 「교단」과의 교류관계를 재개하게 된 재일대한교회는 일본기독교와 한국기독교의 관계개선의 징검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장 총회석상에서의 오오무라의 사죄와 인사는 한일 양국 기독교의 성숙한 관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일기독교의 교류관계는 급진전하였다. 1967년 9월에 「교단」의 장 스즈키 마사히사(鈴木正久)⁽¹⁰⁾는 기장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문맥에 따라 ‘예장통합’으로 약칭함) 총회를 잇달아 참석하여 각각의 총회석상에서 사죄와 인사를 전하였다. 이듬해에는 「교단」의 서기가 한국을 방문하여, 예장통합, 기장 및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문맥에 따라 ‘기감’으로 약칭함)의 대표와 선교협력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한국 3교회와 교단과의 협약」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각 교단 총회에서 비준되어, 1968년부터 한국의 3교회와 「교단」은 공식적인 선교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비로소 한일기독교는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일기독교 교류관계의 급진전의 상징은 당시 「교단」의 장 스즈키의 명의로 1967년 3월 26일(부활주일)에 발표된 「제2차 대전에서의 일본기독교단의 책임에 관한 고백(第二次大戦における日本基督教団の責任についての告白)」, 이른바 「전책고백」이다. 이 고백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 아래에서 전쟁에 협력한 「교단」의 책임에만 국한된 점, 또한 고백의 대상에서 재일교포 및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빠져 있다는 점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고백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교단」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장명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모로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전후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통틀어 최초로 행해진 ‘책임고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백문은 교회와 기독교인, 타종교단체 및 양심적인 지식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덧붙여 이 시기 한일기독교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기독교계의 「한국제암교회 분살(焚殺)사건 사죄위원회(韓国堤岩教会焼打ち事件謝罪委員会)」의 결성과 사죄활동이다. 이 위원회의 결성과 사죄활동은 일본의 한 단립교회—현재의 성서기독교교회(聖書キリスト教会)의 오야마 레이지(尾山令仁)

목사의 노력으로 이루어 졌다. 오야마 목사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제암리교회를 찾았다. 46년 전 일제의 만행에 의해 “보기 민망할 정도로 허술하여 비가 들이치고 한쪽 벽이 허물어졌으며 낡은 기와는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태”의 제암리교회를 눈으로 목격한 오야마 목사는 “우리 일본인들이 과거 한국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여 한국에 대한 사죄와 화해를 위해 활동할 것을 결심했다.⁽¹¹⁾

같은 해 12월에 한일기독교 교류에 뜻을 둔 몇몇 인사가 「한일기독교인 友和의 모임」을 결성하고 한국의 기독교인을 초대하여 「제1회 한일기독교인 友和 세미나」를 열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오야마 목사는 제암리교회의 재건을 돕자는 뜻을 밝혔고, 일본 측 참가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1967년 11월에 제1회 발기인 모임이 열리고,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한 「한국 제암교회 분살사건 사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1968년 4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1년간 1천만 엔을 목표로 일본교회 및 일본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 모금운동은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찬의와 격려에 의해, 예정된 1969년 3월말 전에 목표액 1천만 엔을 달성하였다.⁽¹²⁾

위원회는 목표 모금액 1천만 엔이 달성되자, 제암리교회 분살사건의 50주년이 되는 1969년 4월 15일, 제암리교회 새 예배당 기공식을 거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날, 삼일운동 당시 제암리교회 교인 및 마을사람들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발안시장에서는 유족과 현지 주민들이 기공식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족들은 천만 엔 모금에 참여한 일본인에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의 돈으로 제암리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 후, 유족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모금액에서 오백만 엔으로 제암리교회를 건축하고, 오백만 엔으로 유족회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한 끝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¹³⁾

즉 위원회의 모금활동과 위에서 언급한 「전쟁책임고백」은 일본기독교 안에서 한국에 대한 사죄의 흐름을 이끌어 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에 위치한 다카라즈카(宝塚) 교회의 한 신도는, “1967년 12월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제암교회 분살사건 사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2년간에 1천만 엔의 모금액을 달성하였다. 다카라즈카교회도 여기에 호응하여 모금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1967년에 일본기독교단이 의장 명의로 이른바 「전책고백」을 하고, 우리 교회

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공부모임을 가진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 가운데 나 자신이 한국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건을 인식하므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고 술회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전쟁책임고백」과 「한국 제암교회 분살사건 사죄위원회」는 일본의 많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한국 및 한국교회에 사죄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남북기독교인의 만남과 일본기독교

1979년 10·26사태로 인해 유신의 종말은 도래했지만 민주화의 봄은 도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유신체제보다 더 폭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고, 급기야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하였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파장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기독교 국제기구와 교류를 맺어 왔던 한국기독교는 신군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던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력을 전 세계에 고발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세계교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¹⁵⁾

한국기독교가 통일문제에 나서게 된 것은 1981년 6월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죄의 고백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한독교회협의회」부터였다. 이후 해외에서 해외교포 기독교인과 북한 측과의 만남이 비엔나(1981.11)와 헬싱키(1982.12)에서 차례로 이루어지는 한편,⁽¹⁶⁾ 국내에서는 NCKK에 「통일문제협의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통일문제협의회가 정권의 방해공작으로 협의회 자체가 제대로 개최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¹⁷⁾ 또한 민족통일을 위한 교과서를 연구하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13명이 경찰의 기습단속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처럼 통일논의나 통일문제 연구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버리는 국내사정으로 인해 한국기독교는 세계교회 및 해외교포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와 세계교회는 반인권·반민주적인 한국 상황의 핵심이자 세계평화의 위협의 원인이 한반도의 분단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¹⁸⁾ 하지만 한국기독교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통일운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계기가 된 것은, 1984

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쿄 근교의 도산소(東山莊, 일본YMCA동맹)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국제문제위원회(CCIA)가 주최한「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 이른바「도산소협의회」에 참석하면서였다. 이 협의회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과거 수십 년 동안 에큐메니컬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결과로 이루어졌다. 또한 주최자인 WCC 국제문제위원회(CCIA)는 협의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J),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및 한국의 WCC 회원교단들과 면밀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¹⁹⁾ 당초에는 북한교회와 중국교회도 초청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또한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에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을 갖고 있던 한국교회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면, 이 협의회는 참가자체가 한국기독교 참가단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²⁰⁾ 결국 북한교회와 중국교회는 불참의사를 밝혔고, 남북기독교의 역사적 만남은 그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²¹⁾

이 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한국기독교가 세계교회와 더불어 공론화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협의회는 결과물로서 제출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도산소협의회의 보고와 건의안」, 이른바「도산소보고서」는, 1)이사야 32:17의 말씀처럼 정의는 평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 사회평등, 인권 등의 정의의 결여는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2)세계평화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그 아래서의 민중의 고난이다. 3)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 및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립된 북한교회 및 북한주민들과 접촉해야 한다. 남북한교회의 직접적인 접촉은 정치적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니 한국교회와 더불어 세계교회는 북한교회와의 접촉 및 남북한교회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²²⁾ 즉「도산소협의회」는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다음과 같은 방향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정의와 평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둘째, 분단을 극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회간의 만남과 대화가 중요하다. 셋째,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교회의 보다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²³⁾ 특히 통일운동에 있어서 남북기독교의 만남의 문제는 분단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볼 때, 세계교회의 협력이 불가피한 문제였다. 따라서 남북기독교인의 만남에 있어서 한국기독교인에 비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더 높은 해외교포교회

에 큰 사명감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일대한교회의 이근수 목사는 해외교포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평화통일에 관한 해외동포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떠오른다. 하나는 남북 기독교인의 만남의 장을 보증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과제는 통일프로그램의 과정 속에서 좌절되는 사람들과의 연대와 보살핌이다. ……그 아픔을 나누며, 연대하고 보살피는 것은 같은 소수자의 아픔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²⁴⁾

이와 같은 인식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일본기독교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기독교는 도잔소협의회를 기점으로 한반도 분단문제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 절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일본기독교는 한국기독교에 대해서 “일본정부 및 국민이 범한 수많은 정치적 인권상의 죄악에 대해 일본교회는 머리 숙여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태도를 이어왔다. 하지만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남한정부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북한정부를 무시 내지 적시하는 일본 내의 상황에서 일본기독교는 북한기독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관심도 가지질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²⁵⁾

일본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공산주의 일반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막연한 혐오와 맥을 같이 했다. 더욱이 한국전쟁기에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그 다음은 일본이라는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팽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당시의 북한위협론으로부터 구체화되고 심화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치권은 북한위협론과 혐오의 여론을 자극하여 북한-식민지 지배의 한 쪽에 대해 사죄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어줄 좋은 방편으로서 여론을 호도해왔다. 당시 일본기독교도 북한에 대한 일본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도잔소협의회」를 거치면서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더욱이 한반도 분단의 遠因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일본기독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나름의 방향으로 접근해갔다. 그 방향은, 1) 북한기독교 및 북한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2)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주변정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북한기독교 및 북한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에는 다시 세부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로 북한사회에 대한 일본사회의 편견을 바로잡는 운동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북한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벌인 「식민지 지배의 사죄 및 청산과 새로운 북일관계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에 연대운동을 전개했던 일본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전개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은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죄도 없이 무시 내지 적시의 정책을 지속하여 한반도 분단에 가담해 왔다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국제사회의 도의에 따라 죄를 청산하고 북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다.⁽²⁶⁾ 물론 이 운동은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의 지식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본기독교의 세부적 방향은 남북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일례로 1988년 10월에 도쿄에서 NCCJ의 주최로 개최된 「한반도 평화·통일과 일본」의 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이에 앞서 1986년 9월 WCC 국제문제위원회(CCIA) 주관한 제1회 글리온회의에서 남북기독교인의 역사적 만남이 있었다. 이 자리에 NCCJ의 대표도 참석했는데, 쇼지 츠토무(東海林勤, NCCJ 전 총간사) 목사는 “한국기독교인 대표와 북한기독교인 대표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날에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 여기에 남북양국의 화해와 통일이 선취(先取)되었음을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남북기독교인의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²⁷⁾

제1회 글리온회의에 NCCJ 대표단이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 대외문화연락협회의 초청으로 NCCJ의 대표 3명, 즉 스미야 미키오(隅谷三喜男, NCCJ 평신도 대표, 당시 도쿄여자대학 학장), 마에지마 무네토시(前島宗甫, NCCJ 총간사), 나카지마 마사아키(中嶋正昭, 일본기독교단 총간사) 등은 1987년 5월에 일본인으로서의 해방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들 NCCJ 북한사절단은 황장엽 노동당 정치국 서기,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 북한 요인들과 만나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기독교인으로서 사죄하고 남북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이어 「조선기독교도연맹」(이하, ‘조기련’으로 약칭함) 서기장 고기준 목사 등과 회담하여 이듬해에 도쿄에서 남·북·일 기독교가 참가하는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조기련 대표를 초대하였다.⁽²⁸⁾ 「한반도 평

화·통일과 일본」의 심포지엄이 예정대로 성사된다면, 제1회 글리온회의에 이어 다시 한 번 남북기독교인이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NCCJ로서는 남북일 3개국만이 모이는 그리 성대한 회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작고 보잘 것 없는 노력일지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남북기독교인의 재회를 기대해 마지않았다.⁽²⁹⁾ 그러나 당시 일본의 북한정책에 불만이 있던 북한은 조기련의 일본방문을 인정하지 않아 조기련 대표단의 참석은 무산된 채로, 한일기독교인의 참석만으로 심포지엄은 진행되었다.⁽³⁰⁾

덧붙인다면, NCCJ 북한사절단은 북한방문 이후 이에 대한 내용을 NCCK에 전달하기 위해 한국방문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한국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무산되었고, 나아가 1988년 4월 WCC·CCA 국제문제위원회의 협력 하에 NCCK가 주최하여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역시 한국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인해 참석이 좌절되었다.⁽³¹⁾

하지만 일본기독교는 이에 멈추지 않고 제2회 글리온회의가 열린 이듬해인 1989년 9월도쿄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NCCJ가 주최하는 회의에 남북기독교를 동시에 초대하였다. 이 회의에 조기련 대표단 — 이철 목사(조기련 부위원장), 김운봉 목사, 김남혁 지도원, 양수웅 지도원 등이 참석함으로써 일본에서 최초로 남북기독교인이 한 자리에 만나게 되었다.⁽³²⁾ 이후 90년대에 이르러서도 일본기독교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남북기독교인의 만남의 장을 직간접으로 주선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두 번째로 일본기독교가 한반도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은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주변정세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일차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려는 남북한 양 당사자의 의지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동북아시아 평화무드의 조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하지만, 분단의 직간접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보조약(1960)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즉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동북아시아의 유사사태에 대비해 군사적 주도권을 획득한다는 명분으로 군비증강과 군사협력을 지속해왔던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무드 조성에 크나큰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도잔소협의회」를 전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교회의 각종 회의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교회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³³⁾

그래서 일본기독교는 일본 내의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비증강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특히 주일미군의 핵전력 증강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해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지적인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것이었다.⁽³⁴⁾ 또한 주일미군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³⁵⁾

3. 분단문제에 대한 일본 기독교인의 인식과 그 의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통일운동에 있어서 일본기독교의 역할은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보조를 맞춘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즉 일본기독교의 역할은 미국기독교나 독일기독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일본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일 것이다. 여기서는 분단문제에 대한 일본 기독교인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87년 5월 NCCJ 북한사절단의 평신도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스미야 미키오(隅谷三喜男) 교수는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분명히 남북의 분단을 야기한 것은 미국과 소련이고, 38도선으로서 한반도를 분단했다. 그리고 동서 냉전의 폭발로서 한반도는 전장이 되었고, 남북대립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그러나 미소가 한반도를 분단한 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일본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³⁶⁾

또한 NCCJ 전 총간사였던 쇼지 츠토무(東海林勤) 목사는 1988년 10월 NCCJ의 주최로 도쿄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통일과 일본」 심포지엄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일본의 조선침략에 원인(原因)이 있다는 것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38도선은 일본 관동군과 대본영(역주: 당시 일본군 총사령부)의 구획선이고 이것이 분단의 경계선이 된 것도 흘러버릴 수 없는 사실이다.⁽³⁷⁾

한반도 통일운동은 근본적으로 남북의 분단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거슬러 올라가면 미소의 분할점령과 뒤이은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본의 한반도 점령과 식민지 지배에 그 遠因이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가깝게는 미소의 분할점령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요인으로 수렴된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일본기독교인은 한반도 분단문제를 일본의 책임 또는 죄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 분단문제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교수는 “분단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귀결”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사적 상황을 논증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끝내는 방식에서도 분할점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쟁말기에 일본의 천황제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었다면,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 지어야 합니다. …… 하지만 일본정부는 많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 항복의 시기를 늦추고 말았습니다. …… 7월에 포츠담선언이 발표된 후, 스텝키 수상은 “이것을 목살한다”고 말하는 등 매우 깊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8월 6일에 원폭이 투하된 뒤에도 곧바로 항복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고, 어전회의가 열린 것은 8월 9일 소련이 참전하고 난 뒤였습니다. …… 그 결과로서 소련이 참전하고 난 뒤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거의 자동적으로 분할점령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옛 식민지에서 미소의 분할점령이 된 경우는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서 일본은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³⁸⁾

즉 한반도의 분단은, 태평양 전쟁의 패색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간접적으로 보장했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소련이 참전을 경고한 마당에, ‘소련의 참전은 곧 미소

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명확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늦장을 부렸다는 것이다. 나아가 8월 6일 원폭이 투하된 상황에서도 곧바로 항복을 선언했었다면, 소련 참전 (1945.8.8)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 천황제 정부는 천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 분할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제공했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독교인들은 분단의 고착화에도 일본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 (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외교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쇼지 츠토무(東海林勤) 목사는 1988년 10월 NCCJ의 주최로 도쿄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통일과 일본」 심포지엄의 연설에서 이와 같은 점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맺어 남쪽의 한국과 국교를 연 후, ……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해서 대미추종적인 자세를 지속하며, 북한에의 사죄는커녕 무시 혹은 적시하는 정책을 계속해오고 있다. ……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는 경제 외교 군사 등의 면에서 한반도의 남북분단을 고착화하고 남북의 긴장을 높이는 일에 나서는 것이다.⁽³⁹⁾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일본이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한반도를 영구히 분단시키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반도 분단문제 전문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교수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와다 교수는, ‘1) 한국정부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 2) 한미일 삼국의 집단안보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3) 본 조약은 남북의 분열을 고착화시켜 군사적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4) 본 조약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조약에 반대했던 도쿄대 교수단의 성명(1965.11.13)을 소개하면서,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남북을 차별없이 대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청산했을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⁴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기독교인의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한 인식은, 1) 분단의 원인에 대한 일본의 책임, 2)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한 분단고착화

의 책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는, 한반도 분단에 한 발짝 비켜서있는 객관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남북에 대해 비교적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하려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기독교인의 인식은 한반도 분단문제에 있어서 한국기독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일본기독교인의 인식은 분단의 원인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한국기독교 주류일반이 갖고 있는 인식과 같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북한의 ‘남침’에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한국기독교의 분단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은, 일부의 진보적인 시각을 제외하고는 거의 획일적으로 그리고 생뚱맞게 ‘반공’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발자취를 상세히 연구한 정성한 교수는, “신학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남북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된 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¹⁾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한 일본기독교인의 고백적 인식은 ‘일본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36년간 무단적으로 지배해온 당사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인식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분단문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분단문제에 대한 일본기독교인의 책임의식은 분단의 한 쪽 당사자인 한국기독교로 하여금 한반도 분단문제를 역사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가 이러한 시사점을 놓친다면, 분단문제에 관한 한 ‘복음보다는 반공’⁽⁴²⁾이라는 자기상실의 덫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NCCK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1988)은 분단의 원인을 강대국들의 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어낸 구조적 죄악임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분단의 책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⁴³⁾

다음으로 일본기독교인의 분단문제에 관한 인식의 시사점은 북한기독교 및 북한에 공정하면서도 동등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치권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편입되어있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문제에 있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또한 일본사회의 일반은 일본정치권이 여론을 호도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는 냉전적 사고에서 파생된 시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기독교가 북한에 대해 공정하고 동등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중간자적인 입장’, 다르게 표현하면 ‘중도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국기독교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가 배타적으로 대립해왔다. 이는 양 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적인 신학적 입장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정성한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전 백성의 보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일본기독교인의 분단문제에 관한 인식의 시사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기독교가 미래지향적인 통일담론을 주도해가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한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중도적이며 균형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신학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닫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한반도 통일운동에 있어서 일본기독교는 당시 한국기독교의 주된 통일운동 방향이었던 남북기독교인의 만남에 결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직간접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는 통일운동에 있어서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협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그들 나름의 방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나름의 방향성은 먼저 북한기독교 및 북한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주변정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면은 이후 90년대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그 초지를 면면히 이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본기독교인의 분단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은, 분단에 대한 책임 내지 죄책의식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가깝게는 미소의 분할점령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인식인 것이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일본이 남북의 분단상황을 고착화한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일본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기독교인 자신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인식에는 북한기독교 및 북한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보려는 시각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우리는 한반도 분단문제를 역사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는 한국기독교 안에 ‘중도적인 입장’의 신학적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끝으로, 일본기독교는 ‘야오요로즈노가미’ (八百萬神)의 다신교적 종교문화가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일본사회에서 그들 스스로가 1%에도 못 미치는 소수이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보다 더 약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세상의 빛’,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소망하며, ‘일본기독교 나름의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0, pp. 102~110.
- (2) 여기서의 ‘기독교’란 프로테스탄트 교회 및 유관기관을 뜻한다.
- (3) “양 체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한일기본조약』 제 1조.
- (4) 1965년 7월 5-6일, 서울지역 교역자들이 서울 영락교회에 모여 비준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126명이 연서한 「한일협약비준반대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김수진, 『한일교회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1990, pp. 262~266.
- (5) 1948년 5월 17일 창립. 2009년 현재 6개의 교회, 8개의 기독교단체가 정회원으로 가맹되어 있고, 준가맹교회 및 단체는 18개이다.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ncc-j.org/>).
- (6) 김수진, 『일본기독교의 발자취』,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p. 201.
- (7) 1939년에 공포된 『종교단체법』에 의해 기독교 제 교파가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되면서, 1941년 6월에 기독교 단일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이 성립하였다.
- (8) 日本基督教団出版局編, 『日本基督教団史資料集』 第4巻,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8, pp. 26~27.
- (9) 1909년, 장로교, 감리교 연합공의회로부터 파견된 한석진 목사가 도쿄 주재 한국 유학생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한 것이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시작이다. 본국의

- 교세의 성장에 따라, 많은 목사, 전도사가 내일하여 재일한국교회도 나날이 발전하였다. 1940년, 전일본의 60개 한국교회가 대회를 조직하여, 『중교단체법』에 의해 탄생된 「일본기독교단」에 강제 편입되었다. 1945년, 한국의 독립과 함께 「일본기독교단」에서 이탈하여, 「재일조선기독교회연합회」를 조직하고, 전쟁 중에 흩어졌던 교회신도를 수습하여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를 조직,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キリスト年鑑』, キリスト新聞社, 1992, pp. 190-191, 「在日大韓基督敎會」항목 참조.
- (10) 1912~1969 「일본기독교단」 목사. 千葉県 출생, 靑山学院神学部 졸업. 日本감리교 碑文谷, 中央会堂, 亀戸敎會 牧師를 역임. 1941년 「일본기독교단」의 성립과 함께, 동 교단의 목사가 되어, 本郷中央敎會, 駒込敎會 (현재의 西片町敎會) 牧師를 역임. 66년 「일본기독교단」의장으로 선출. 67년 부활절에 「제2차 대전에 서의 일본기독교단의 책임에 관한 고백」을 의장 명의로 공표하여 한국교회와의 관계회복. 沖繩 (오끼나와) 기독교단과의 합동실현, 원폭피해자를 위한 시설건립 등에 진력. 大貫隆 他編, 『岩波キリスト敎辭典』, 岩波書店, 2002. 「鈴木正久」항목 참조.
- (11) 姜信範, 「堤岩敎會三・一運動史」, 小笠原亮一 他, 『三・一獨立運動と堤岩里敎會事件』,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9, p. 56.
- (12) 尾山令仁 (오야마 레이지), 「一つの謝罪運動 (하나의 사죄운동)」, 『福音と世界』 12月号, 新敎出版社, 1970, p. 58-60.
- (13) 위의 글, p. 63.
- (14) 韓國基督教歷史研究所 編, 信長正義 訳, 『三・一獨立運動と堤岩里敎會事件』,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局, 1998, p. 247.
- (15)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p. 382.
-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0, pp. 25-29.
- (17) 위의 글, pp. 30-31.
- (18) 84년 3월에 열린 「한·북미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캐나다교회협의회)의 「제3차 한·북미교회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참조. NCKK 통일위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pp. 32-34.
- (19) 위의 글, pp. 36-44.
- (20) 당시 북한 및 북한기독교에 대한 보수적인 한국기독교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정성한,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 도서출판 그리심, 2006, pp.240-260.
- (21) 『キリスト新聞』, 1984년 12월 8일자.
- (22)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도잔소협의회의 보고와 건의안」,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pp. 36-44.
- (23) 김상근,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평가와 제언」, 위의 책, p. 16.
- (24) 재일대한기독교회 (KCCJ) 평화통일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KCCJ—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도교회의 평가자료집』, 재일대한기독교회,

- 2000, pp. 18-21.
- (25) 隅谷三喜男(스미야 미키오), 「分斷の呻きと統一への希望(분단의 신음과 통일에의 희망)」, 韓國問題キリスト者緊急會議(NCCJ)・NCCアジア資料センター,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もとめて(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희구하며)』, 新教出版社, 1989, pp. 3-4.
 - (26) 東海林勤(쇼지 츠토무), 「アジア状況の中での共同体形成(아시아 상황 속에서의 공동체 형성)」, 『福音と世界』 12月号, 新教出版社, 1989, p. 12.
 - (27) 東海林勤(쇼지 츠토무), 「南北統一とキリスト者の課題(남북통일과 기독교인의 과제)」,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もとめて』, 新教出版社, 1989, p. 39.
 - (28) NCCJ 제31회총회보고서; NCCK 통일위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pp. 94-95.
 - (29) NCCJ 전 총간사였던 쇼지 츠토무(東海林勤) 목사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일본」 심포지엄에서 행한 연설.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もとめて』, pp. 38-45에 수록.
 - (30) 隅谷三喜男, 「分斷の呻きと統一への希望(분단의 신음과 통일에의 희망)」, pp. 3-4.
 - (31) NCCK 통일위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p. 486.
 - (32) NCCJ 제31회 총회보고서.
 - (33) 「제3차 한·북미교회협의회 공동성명(1984.3)」, 「도산소보고서(1984.10)」, 「아시아 평화협의회 성명(1985.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미국교회협의회 총회 정책성명(1986.10)」,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결의문-미국장로교회 제198차 총회 특별성명(1986.12)」 등이다.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pp. 32-101.
 - (34) 東海林勤(쇼지 츠토무), 「南北統一とキリスト者の課題(남북통일과 기독교인의 과제)」,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もとめて』, p. 43.
 - (35) 위의 글과 같음.
 - (36) 隅谷三喜男, 「分斷の呻きと統一への希望(분단의 신음과 통일에의 희망)」, p. 4.
 - (37) 東海林勤(쇼지 츠토무), 「南北統一とキリスト者の課題(남북통일과 기독교인의 과제)」, p. 39.
 - (38) 和田春樹(와다 하루키), 「南北統一への視角(남북통일에의 시각)」,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もとめて』, pp. 71-72.
 - (39) 東海林勤(쇼지 츠토무), 「南北統一とキリスト者の課題(남북통일과 기독교인의 과제)」, p. 40.
 - (40) 和田春樹(와다 하루키), 「民族としての責任(민족으로서의 책임)」, 『福音と世界』 6月号, 新教出版社, 1984, pp. 29-30.
 - (41) 정성한,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 p. 382.
 - (42) 위의 글, p. 105.
 - (43)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pp. 102-110.
 - (44) 정성한,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 p. 383.

- (45) 1859년에 일본에 개신교 선교사가 도래-그러나 오키나와에는 본토보다 10여년 앞선 1846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도래-하기 시작하여, 1872년에 일본에 최초의 개신교 모임이 탄생한 이후, 일본의 개신교는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기독교는-카톨릭의 역사 400여년을 포함하더라도 역사상 한 번도 1%에조차 이른 적이 없는 언제나 소수자의 자리를 지켜왔다. 2000년의 『キリスト新聞』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 크리스천 인구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아울러 109만 7730 인이고, 이것은 일본 총인구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그 내역은 카톨릭이 45만 명, 프로테스탄트가 59만 명이고, 그 중에 개신교 최대의 교파인 「일본기독교단」이 20만 명, 두 번째로 큰 교회인 성공회가 6만 명 정도이다.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 김수진, 『일본기독교의 발자취』,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한일교회의 역사』, 대한기독교서회, 1990.
 사와 마사히코, 『일본기독교사』, 대한기독교서회, 1995.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재일대한기독교회 (KCCJ) 평화통일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KCCJ-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도교회의 평가자료집』, 재일대한기독교회, 2000.
 정성환,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 도서출판 그리심, 200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2000.

2. 일본어 문헌

- 大貫隆 他編, 『岩波キリスト教辞典』, 岩波書店, 2002.
 韓國問題キリスト者緊急會議 (NCCJ)・NCCアジア資料センター, 『朝鮮半島の平和
 と統一をもとめて』, 新教出版社, 1989.
 姜信範, 「堤岩教会三・一運動史」, 小笠原亮一 他, 『三・一独立運動と堤岩里事件』, 日
 本基督教団出版局, 1989.
 『キリスト年鑑』, キリスト新聞社, 1992.
 東海林勤 (쇼지 츠토무), 「アジア状況の中での共同体形成」, 『福音と世界』 12月号,
 新教出版社, 1989.
 日本基督教団出版局 編, 『日本基督教団史資料集』 第4巻,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8.

和田春樹(와다 하루키), 「民族としての責任」, 『福音と世界』 6月号, 新教出版社,
1984.